



나를 키운 8할은 신념

SWP신우전자 허훈 대표

젊은 감각과 순수한 열정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일까. 최근 창업하는 벤처 대표들은 다들 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창업한지 벌써 18년을 훌쩍 넘긴 SWP신우전자 허훈 대표는 '여전히' 젊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인다는 것은 '열정적'이라는 것과 통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되뇌어온 그의 신념이 현재의 SWP신우전자를 낳았다.

휴

대폰 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 SWP신우전자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린다. SWP신우전자 _____ 는 휴대폰에 필수적인 부저 및 스피커 부품을 제조해온 기업. 1986년 창업 당시, 대부분 일제 부저를 쓰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SWP신우전자 허훈 대표는 국내 생산을 꿈꾸었다. 그리고 시대흐름을 읽는 SWP신우전자 허훈 대표의 발빠른 감각은 적중했다. 1994년에 노키아에 이어 모토로라, 에릭슨, 지멘스 등에 납품을 시작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해나갔다.

하나의 아이템에서 성공을 거두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굳이 한 우물만 고집할 이유는 없었다. 휴대폰용 원도패널을 양산해 휴대폰 부품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최근에는 DVD타이틀 대여 자판기로 활용될 DVD통을 출시해 엔터테인먼트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단돈 500만원을 들고 시작한 SWP신우전자는 현재 27억의 자본금을 축적한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는 성공한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허훈 대표는 SWP신우전자를 창업했다. 지금이야 젊은 나이에 창업하는 CEO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 허대표는 오래 전부터 '나는 남다르다. 나는 성공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성공을 위한 자기 최면이었을까 젊은 패기였을까, 그의 이런 자신감이 어려운 시절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창업한 후 2년 동안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여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어요. 무선전화기 시장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대거 부도를 맞은 거죠. 결혼 후 일찍 장만해두었던 집을 팔고, 지하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야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음을 발행했다라면 완전히 부도가 났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허대표는 그때의 경험을 참 값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과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젊을 때에 비해 거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는, 타고난 외모뿐 아니라 타고난 젊음을 지닌 듯하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여러 날을 잠 못 이루는 그는 대단히 치열하며 정열적이다.

허훈 대표와 그의 新友

SWP신우전자가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보다 허훈 대표의 '사람 관리'에서 드러난다. '새로운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기업명 '新友'를 보더라도 그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의료비 지급, 생일 휴가제, 직급별 간담회 문화 활성화, 장기 근속자 표창 등 SWP신우전자의 직원들이 한껏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 정도로 사내 복지도 훌륭하다. 작년 12월 관리직 직원 68명 중 평균근속 7년차 이상인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허대표의 이런 '직원 경영'은 본사뿐 아니라 중국에 단독법인으로 출자한 제조공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되도록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등 직원들의 의식주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불량률이 감소하고 이직률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 지시를 내리기보다 제안을 받기를 요구하는 허훈 대표가 꿈꾸는 SWP신우전자의 미래상은 “대표가 없어도 잘 나가는 회사, 즉, 대표 한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회사”이다. 연말이 오면 신우전자 친구들에게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열성인 그는 참으로 '새로운 친구'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재주를 지닌 경영자인 듯하다. 허대표는 그의 또다른 친구 일 벤처인들을 위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창업의 목적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머니게임이 아니다. 진정한 사업의 묘미를 느끼려면 신념을 갖고 자신과 회사를 오래도록 경영하라.”

허훈 대표의 즐겨 찾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

차가워보이는 첫인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허 대표는,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즐겨찾는다. 게다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홀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허대표는 중국, 유럽 등 해외출장이 잦기 때문에 사업상 중요한 사안의 대부분을 비행기 안에서 현지에 머무르면서 결정하곤 한다. 또, 화장실, 서재 등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값진 아이디어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즐겨찾는다.